

에세이 제목	Konglish? Who cares!
제출학생 학과	행정학부
<p>"What is your plan for this weekend?"</p> <p>벽안의 원어민 선생님은 수차례의 쉬운 질문에도 학생이 답이 없자 끝내 다그치듯 물었다. 그 앞에 얼굴이 홍시마냥 붉어진 채 입도 뻥긋 못하는 초등학생이 있었다. 고개를 들어 겸연쩍게 살짝 웃어 보였지만 선생님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곧이어 교실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반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던 꼬마는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기분으로 제발 이 수업을 끝내는 종소리가 울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게 영어와 나의 강렬한 첫 만남이었다. 부끄럼을 워낙 잘 타는 성격이긴 했지만,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의 완벽한 한국인의 발음이 제법 외국인의 그것과 같은 흥내를 잘 내는 반 친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촌스러워 보일까 염려되었고 순간적으로 문법에 정확히 맞는 표현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차라리 답을 하지 않고 버티 볼 심산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나의 Konglish를 보여주기가 싫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행동은 본의 아니게 오히려 원어민 선생님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지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내가 아는 영단어 몇 개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나에게 원어민 선생님의 차가운 말투와 반 친구들의 시선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잊히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방학이면 간혹 친구들의 해외 언어연수 경험담을 들었고, 대전 외곽에 사는 내가 접하기 힘든 각종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얘기를 건너 건너 듣고 나면 그때의 생각이 나면서 나의 열등감이 좀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능과 토익을 준비하면서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 마치 방 한구석에서 보기 싫은 벌레라도 본 것 같이 기분이 불쾌했었다. 영단어를 달달 외워 수능과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고 주변에서 부러움 섞인 칭찬을 받아도 내심 속에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내 영어실력이란 것이 고작 시험에 소용될 뿐이라는 생각에 마냥 좋지는 않았다.</p> <p>처음 교양과목으로 World Englishes and cross cultural communication(줄여서 WECCC)을 선택할 때만 해도 그런 기분이었다. 왜 English가 아니라 Englishes 인지는 전혀 몰랐고 부끄럽게도 관심 역시 없었다. 학기 초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를 언제 시작할지도 몰랐고,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다.</p> <p>다행히 학기가 시작되고 첫 강의에서 그러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 교수님의 강의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나에게 잘 맞았다. PDF 파일로 강의를 하시고 꼭 원어민이 직접 억양과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전 세계 각지의 영어 억양을 현지인의 발음으로 앓은 자리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 강의의 순기능인 셈이었다. 강의를 중간에 멈추고 교수님이 달아주신 링크를 따라 영상을 보고 나면 방금 배운 내용이 직접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특정 지역과 그 지역</p>	

에서 쓰이고 있는 영어의 다양성을 강의하실 때면 직접 화면에 지도를 띄워서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지역을 떠올리고 그 특성을 한결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영국인들이 쓰는 영어에 대해 배울 때, Liverpool과 Manchester와 같이 축구로 유명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평소 자주 듣던 지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강의 효과가 배가 되는 기분이었다.

왜 World Englishes 인지에 대해서도 첫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만 쓰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굳이 영국과 미국에 한정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아는 사실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영어를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해보긴 했지만, 영어 그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영어를 사용하는 중요도와 빈도에 따라 The Inner circle, The Outer circle, The Expanding circle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Inner circle에는 평소 알고 있었던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속해있었고 강의가 계속됨에 따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단어와 표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어법의 차이도 있었는데 Manchester 지방에서 쓰는 영어를 뜻하는 Mancunian은 복수형인 are과 were가 기본형으로 쓰이고 있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내 발음과 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데에는 영어가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있는 언어라는 오해 때문이었으므로, 같은 영어권 국가들끼리도 전혀 다른 억양과 표현을 쓴다는 데에서 비사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영어권 국가들끼리도 그리한데 하물며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쓰는 영어가 조금 서툴거나 발음이 둔탁하다고 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평소 한국 사람들이 본토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것을 지적하며 가령 cell phone을 핸드폰으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던가 하는 자조가 섞인 영상을 보며 혹시 내가 핸드폰이라고 말하면 외국인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은근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내가 그런 부분에 나쁜 기억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다.

강의 중반을 넘어서자 나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주제가 한 가지 더 기다리고 있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공용어로 지정한 국가들은 The Outer circle에 속하는데, 영어는 이들 국가에서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 즉 Lingua Franca라는 독특한 지위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는 최근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인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나는 인도 발리우드 영화에 빠져 80년대 인도영화의 음악과 춤까지 찾아볼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들은 주로 타밀어, 우르드어 등의 자기 지역 언어로 연기했지만, 영화에서는 이들이 영어를 쓰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인도의 지식인 계층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그 특유의 인도식 억양으로 영어 대사를 연기할 때는 솔직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 적도 있었다. 내 억양과 발음을 부끄러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의 억양에 입꼬리가 올라간 것은 고약한 마음씨였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강의를 들으며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더욱 나의 전문이 넓어지면서 이러한 생각에도 변

화가 찾아왔다는 점이다. 애초에 영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나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영어를 자신들의 처한 환경과 용법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괜히 영어를 무서워했구나’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B 발음과 V 발음의 구분을 어려워 하듯이 인도사람들 역시 W 발음과 V 발음의 구분을 어려워한다는 강의 내용을 보자 그동안 발리우드 영화를 보며 그 둔탁한 영어 발음에 피식 웃어버렸던 것에 미안한 감정까지 들 지경이었다.

WECCC 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듣기 전까지는 사실 토익, 토익 스피킹과 같은 영어 자격증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임했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대면 강의는 하지도 못하고 교수님이 올려주신 몇십 분짜리 강의를 들으며 무슨 공부가 되겠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강의를 수강하며 작은 화면으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의 차이점을 배우고 직접 들어보는 것은 비대면 강의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더불어 내가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영어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었다. 강의에 나온 많은 국가들에서 영어는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의사소통을 위해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고 가감할 수 있는 좋은 재료였을 뿐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 발음이 전혀 다르고, 쓰이는 단어마저도 다른 경우가 있다는 수많은 예시를 보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영어를 향한 무거운 짐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는 어릴 적의 안 좋은 기억이 더해졌을 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나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쓰는 영어가 비웃음을 사게 될까 봐 혹은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발음과 억양이 세련되지 못하여 사람들의 좋지 않은 판단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선불리 영어로 의사소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더 이상 발음이 세련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식 발음이 부끄러워 답을 알고 있음에도 대답하지 못했던 어린 날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Konglish? Who cares!"